

신장까지 줬는데 이별 통보 받은 여성



▲ 콜린 르 사진=Tickok(Colleen Le)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 준 남자친구에게 차인 한 미국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22일 '더 선'에 따르면 콜린 르(30)라는 여성은 2016년 교제 중이던 남성에게 신장을 기증했다. 콜린의 남자친구는 17살 때부터 만성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으며 그의 신장 기능은 5% 이하로 떨어져 수시로 투석을 받았다.

콜린은 "당시 죽어가는 그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며 신장을 기증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했다. 적합 검사를 받아 통과한 콜린은 망설임 없이 신장을 기증했다. 콜린은 장기 기증 증서도 공개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새 삶을 얻은 남자친구는 7개월 만에 바람을 피웠다. 남자친구를 철석같이 믿었던 터라 배신감이 컸지만, 콜린은 그를 용서하고 교제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다. 3개월 후 남자친구는 콜린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콜린은 "우리가 운명이라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것"이라며 "보기 좋게 신장만 기증했네." 라는 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콜린은 자신의 사연을 지난해 8월 틱톡을 통해 공개했고 입소문을 타고 번지다 언론 주목을 받으며 뒤늦게 확산했다. 남자친구의 뻔뻔함을 손가락질하는 여론이 조성됐고, 신상 공개 요구도 이어졌다.

콜린은 "그래도 후회는 없다."면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신장 하나로 사는 내게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좌석 셀프 업그레이드 승객 탓에 여객기 회항

지난 20일 뉴저지 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편이 회항했다. 좌석을 스스로 업그레이드한 승객들 탓에 여객기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 사진=dailymail.co.uk

이날 해당 여객기는 123명의 승객과 11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텔아비브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륙 직후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코노믹 승객 2명이 허락 없이 임의로 비즈니스석으로 이동해 자리에 앉았다.

이에 승무원이 티켓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거부했으며 원래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승무원들의 말에도 옮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이들과 승무원들 사이에서 큰 실랑이가 벌어졌고 기장은 비행에 방해로 주는 승객의 행위로 판단한 여객기를

다시 출발지로 되돌렸다.

이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 남성은 "2명의 승객들이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기 거부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면서 "이들 승객들은 비즈니스석의 좌석이 많이 비어 그곳에 앉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

았다."고 밝혔다.

해당 여객기는 이륙 3시간 후 다시 뉴어크 리버티공항으로 돌아왔으며 공항 경찰이 이들 승객 2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CNN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여객기 내 승객들의 행동으로 여객기가 회항하는 일이 늘고있다. 지난 20일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노 마스크' 승객 때문에 회항하기도 했다.

자유 찾아 요양원 탈출하다 죽은 노인



▲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구조대원들. 작은 사진은 숨진 마리오피노트. 사진=newsnpr.org

면회가 금지된 요양원을 탈출하려던 노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오전 6시 30분쯤,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주에 한 요양원에서 91세 마리오피노티가 숨진 채 발견됐다. 노인은 침대를 엮어 만든 밧줄을 허리에 동여매고 있었다. 수사 당국은 2층 방에서 밧줄을 타고 창문 밖으로 탈출한 노인이 발을 헛디디면서 콘크리트 벽에 머리와 가슴을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숨진 노인은 지난해 3월 요양원에 입소했다. 91세 고령으로 더는 혼자 힘으로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간 조카와 친구, 이웃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미혼으로 산 노인이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되면서 고립감이 심해졌다. 결국 노인은 침대로 엮어 만든 밧줄 하나에 의지해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인은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건 담당 검사는 "타살 정황이 없어 부검 없이 시신을 친인척에게 인도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은 티를 내지 않았지만 우울증이 깊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이탈리아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령인구가 많은 국가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22.8%에 이른다.



Thank You Dental!

Implant Orthodontic General Dentistry



Special 1

Free Consultation

Digital panoramic x-ray & 3D CT

Special 2

Implant \$2,000 \$1,200

환자 맞춤 이식 및 관리
뼈이식시 자가혈 치료 무료 (Reg. \$500)

뼈가 부족하거나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Thank You Dental에서는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CBCT 구비, 자가혈 CGF 치료, 최상의 장비 구비 및 철저한 소독

풍부한 임상 경력, 임플란트 전문, 일반치과, 교정치과, 전문 치위생사와 함께 일하는 원스탑 종합 치과

OC (714) 772-5656

1721 W. Katella Ave #A, Anaheim, CA 92804

한인 담당 매니저 Annie

임플란트, 구강외과 교정 전문의 일반 치과 치위생사

Dr. Michael Ahn
Dr. Dan Nguyen
Dr. Young Kim, Dr. Hoang Viet Kelly Nguyen, Mindy Pham

각종 보험 (PPO) 메디칼 환영